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24호 / 2026년 07월 24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예고된 참사!

- 이제 경영의 최고책임자, 정몽원 회장이 직접 나서야...

그동안 주위 사업장이나 언론 지상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각종 사망사고가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일터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7/22일, 오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정비를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협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자체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위해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24일(금),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경기도방 고용노동부로 이동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철저한 진상조사로 낱알이 밝혀야!

이미 사망사고는 발생했습니다. 남은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설비 상태, 외주업체와 정보 공유, 설비 정지와 재가동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정몽원 회장이 답해야!

평택공장에서 4~5년 전부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유사한 위험과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근본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현재 총괄대표가 만도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정몽원 회장입니다. 신규채용 중단이 비용 절감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규채용이고, 이제 최고 경영진이 답해야 합니다.

사측, 노사합동 안전점검 요구 거부!!

평택지회가 요구한 노사합동 안전점검이 사측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측은 관련 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핑계였지만, 공장내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안전 문제를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하자는 요구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진상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지회의 안전점검 요구에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사고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위험한 곳을 다시 살피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어제는 외주업체 노동자, 오늘은 우리 중 누구일 수도!**

일단 노동조합의 요구에 미온적인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노동조합의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인지? 우리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이번 사망사고를 대하는 사측의 태도는 도무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장 안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조합원의 안전 문제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쓰며 현장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어제는 외주업체 노동자였지만, 내일은 우리 중 그 누구일 수 있습니다. 평택지회의 합동 안전점검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사측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의 보호조치와 유가족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현재 노동조합은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장례 문제를 포함해, 이번 사고의 제반 문제와 법률적 지원을 유가족과 상의하면서 회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현장의 목격자 중 조합원과 관리감독자가 있었고,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측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